



오늘의 말씀 - 화 (출 4:18-23)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다

18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19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22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본문 이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손이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 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적용

“애굽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담판을 짓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에는 그

행렬이 너무 초라합니다. 전혀 가당치가 않습니다. 누구보다 모세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강물을 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손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말도 안되는 행장을 하고도 바로에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기만 하면, 나의 지식이나 능력 등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니 없을수록 하나님의 손을 더 굳게 잡을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양치기로 살았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이 말은 결코 겸손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바로에게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나는 안돼” 하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

다. 이것이 곧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도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과 손을 잡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굳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음을 알고 용기를 내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게 하옵소서.

신실하게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시고, 아가페회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위에 힘을 더하여주옵소서.

(내일 말씀: 출 4:24-31)